



곱창집 알바녀 "23억
벌려면 어쩔 수 없었어요.."



살빠지는 "슈퍼유산균",
-7kg 똥뱃살 짝 빠져!



로또 종이 뒷면에
1등 당첨 비결 다 있다

정치/행정 | 지방정가

윤석열 "공공기관 이전 등 정부 주도의 국가균형발전 안돼"



이현제 기자



승인 2021-07-06 17:07

신문게재 2021-07-07 1면

- 1 이번주 로또1등 예상번호 "3,12,24,32"
- 2 살빠지는 "슈퍼유산균", -7kg 똥뱃살 짝 빠져!
- 3 로또 종이 뒷면에 1등 당첨 비결 다 있다!

AD



기자간담회 중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 사진=이현제 기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6일 "공공기관 이전 등 정부가 주도하는 방식으로는 국가균형발전이 안 된다"고 말했다.

국회 세종 이전 시기에 대해선,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전형적인 전제를 달았다.

윤 전 총장은 이날 대전 유성구 라도무스 웨딩컨벤션에서 자청한 간담회에서, "한국사회가 당연히 추구해야 하는데, 공공기관이나 정부부처 이전으로 공기업을 내려보내는 정부의 일방적인, 강제적인 방식에 의해서가 아니라 제도를 지원해 민간 기업들 스스로 특정지역에 산업기지를 조성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윤 전 총장은 "공기업을 지방으로 이전하면 아버지는 KTX를 타고 다니 다니고, 가족은 수도권에 산다. 가족 전체가 이주할 수 있어야 한다"며 "고기업을 내려보내면 지방에 큰 보탬이 되지 않는다. 민간 대기업이 지방에 큰 보탬을 그칠 수 있어야 지역경제에

이것을 두 것이야 한다. 네, 중기집을 네너포네기포니. 전인 네기집이 시경에 두 두군를 두국할 두 것이야. 시력경세에 도움이 되고, 결국 균형발전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라도와 경상도, 충청도에 국내 굴지의 기업이 하나씩만 이전해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균형발전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며 "정부주도형으로는 균형발전과 지역 주민들이 실질적인 이익을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국회 세종 이전과 관련해선, "국회와 주요 행정부처 사이에 물리적 거리가 떨어져 있는 것은 비효율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크게 봤을 때는 국회와 행정부처가 지근거리에 있어야 의회주의가 제대로 되고, 행정의 효율성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전 시기와 관련해선, "세종시 국회 이전 문제는 언젠가 옳다, 빠르다, 늦다가 아니다. 추진이나 방향에 대해선 조금 더 봐야 하지 않겠느냐.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충청대망론 주자에 대해선, "충청대망론은 충청 출신으로 대통령이 된 분이 없다는 지역민의 정서라고 생각한다"며 "저희 집안이 집성촌에서 500년 살아왔고, 부친과 형제분들은 학교 때문에 공주로 이 전해 지금까지 살고 계시다. 뿌리는 충남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해 주시는 것으로 이해한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반대하며 국민의힘 입당 문제도 언급했다.

윤 전 총장은 "핵폐기물 처리 문제는 우리나라와 외국에서도 안전한 기술들이 개발되고 있다. (원전 유출에 대한 우려에 대해선) 일부 연구실에서 세슘 유출 등의 문제와 탈원전을 바로 연결하기엔 관련성이 적다"고 말했다.

이현재 기자 guswp3@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 기사 모음 ▶

화제기사

- └ 이번주 로또1등 예상번호 "3,12,24,32"
- └ 살빠지는 "슈퍼유산균", -7kg 똥뱃살 짹 빠져!
- └ 곱창집 알바女 "23억 벌려면 어쩔 수 없었어요.."
- └ [화제] 남편 몰래 3년간 로또당첨 숨긴 여 결국..
- └ 13년전 로또1등 당첨자, 근황 살펴보니..'충격'
- └ 로또 종이 뒷면에 1등 당첨 비결 다 있다!

AD

인기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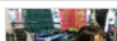
로또 종이 뒷면에
1등 당첨 비결 다 있다!



살빠지는 "슈퍼유산균",
-7kg 똥뱃살 짹 빠져!



택시운전사, 손님이버린
로또 용지로 1등 당첨돼



2만원으로 10억 만든

AD



3인 편즈도 10억 넘는
20대 여대생의 비결

추천기사



대전지역 중증병상 일주일 째 사용가능한 병실 '0'



대전문화재단, 노조 간 '불균형 대우' 도마 위



수능 출제 오류 인정... 최상위권 입시 파장 예상



천문연 내년 상반기 큐브위성 '도요샛' 발사한다



[2022 리포트 충청지대] 역대 대전시장 최연소 출마자와 사전투표율은?

중도TV



[영상]대전하나시티즌 승강플레이오프 2차전 대전서포터 동행 취재! 승격 그거 내년에는 인생 걸고 올라갑니다.

랭킹뉴스

- 1 대전소방 왜 이러나...승진대상자 부적절 문자에 14명 술판까지
- 2 제주서 규모 4.9 지진... 기상청 "여진 주의"
- 3 도쿄올림픽 금메달리스트, 택시기사 '폭행'
- 4 높은 지역 하도급률 비결은 편법?...코오롱글로벌 편법 의혹
- 5 '더마코스메틱' 녹여낸 K-화장품... 뷰티시장 공약할까
- 6 재택치료자 이송을 위한 방역택시
- 7 인공우주물체에 둘러 쌓인 지구
- 8 좀처럼 줄지 않는 선별진료소의 긴 줄

- 9 방역패스 앱 이틀 연속 먹통에 곳곳에서 혼선
- 10 근지구 우주환경 관측 위성 '도요샛' 실제 비행모델 공개

주간 이슈 키워드

대덕e로움

대전
하나시티즌

충청권
슈퍼예산

수능 성적표

충청
지방은행 재건

특별방역대
책

중도일보 뉴스를 만나보세요!



PC버전 | 회사소개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1길 2 효성빌딩
(우) 04515 전화 : 1522-4620
대전광역시 중구 계룡로 832 (우) 34908 전화 : 042-220-1114
회사명 : (주)중도일보사 제호 : 중도일보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대전 가00003
등록일자 : 2001-12-13 발행인 : 김원식
편집인 : 유영돈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덕기

Copyright © 2020 중도일보 All rights reserved.

